

# 전남교육청 “코로나 위급 상황시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 비상연락망 구축· 대응 매뉴얼 교육...신속 대응 장석웅 교육감 “밀집도 최소화 위해 원격수업 전환”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일 오전 5층 상황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학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각급 학교에 비

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응 매뉴얼을 교육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해 즉각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 내 2차 감염 예방의 핵심은 ‘밀집도 최소화’ 인만큼 초등 700명 이상, 중등 900명 이상 과대학교의 격일·격주 원격수업 병행 방침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대학교 기준에 미달한 학교라도 과감하게 원격수업을 병행해달라.”면서 전남교육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목포 하당중학교 사례를 들었다.

목포 하당중의 경우 원격수업 병행 기준보다 훨씬 적은 전교생 492명임에도 원격수업을 진행한 결과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당중은 이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틀 동안 원격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것이 추가 감염확산을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PC방·노래방·카



페·종교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이용 자제를 강력 당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던 목포시와 인근 무안,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나주·남평·화순·장성·담양 등 7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오는 7월 15일(수)까지

열람실과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또, 도내 22개 공공도서관(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포함) 가운데 광주 거주자로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인근 지역을 방문한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강사는 특별 관리토록 했다.

광주 인근 나주·화순·담양·장성 지역 모든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7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1주일 동안 휴원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돌봄교실에 대한 방역도 크게 강화했다.

체온계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우선 확보해 비치하고, 교실 소독, 입실·귀가 시 발열확인, 마스크 착용, 간식 전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돌봄교실 운영을 중지하고, 인근 학교 중등교중지가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개학 당시의 긴급돌봄체제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자연과학고, 2020학년도 영농학생축제 ‘성료’

### 학생들 간의 우의 증진...자질·능력 기르기 위한 목적



광주자연과학고가 제49년차 광

주영농학생축제를 지난 1일 개최했다.

2일 광주자연과학고에 따르면 광주영농학생축제는 학생들 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광주 영농학생축제는 이론경진, 실무능력경진, 과제이수발표, 글로벌 리더십, 골든벨 등 5분야 17종목으로 구성됐다. 광주자연과학고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이론경진에 19명, 실무능력경진에 11명, 과제이수발표에 6명, 글로벌 리더십에 1명, 골든벨에 6명이 참가했다. 지부 성격을 갖는 광주 영농학

생축제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전국 영농학생축제(2020년 9월23~24일)에 출전하게 된다.

영농학생회의 주목적은 지도성, 과학성, 협동성 3가지이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전진대회, 수련대회, 토론회, 과제활동 등에 참여한다.

광주지부 영농학생회장인 이채빈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도와가며 다름 없이 지내는 모습에 뿌듯했다”며 “포기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도와가며 일을 해결하는 것이 혼자 욕심 부려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깨달음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전남 교육청, 참좋은 ‘작은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작은학교 학습공동체 22팀의 특수분야 직무연

수를 적극 지원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4일 입혜서초의 ‘앞서가는 암서학습공

동체’의 ‘작은학교 큰 세상 만들기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22개 학습공동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15시간)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이번 직무연수는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맞게 단위학교, 공동(연계) 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연수팀별로 기획·운영되며, 소속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김정환 기자

## 광주, 공·사립 전체 유치원 17일까지 원격수업

### 북구 관내 유치원 86개원도 17일까지 연장 적용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유치원 284개원에 대해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춰 7월7일부터 1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위중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광주시·방역전문가·교육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북구 관내 유치원 86개원에 대해 당초 7월12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조치도 17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북구 특·초·중·고(고3 제외)는 7월12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초·중학교는 7월6~15일 전체 학생의 1/3 내외가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내

외가 등교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제 어린이집 유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280개원에 대해 17일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유치원 교직원들은 위중한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순천대 미래융합대, 유튜브 통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개선

### 오는 30일까지 5개 업체 컨설팅 영상 공개 예정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 여수MBC와 손잡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4월 2일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이번 온라인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부심사를 거쳐 선정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가 경영개선 및 홍보 전략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수 MBC 뉴미디어센터가 촬영하고, 리뷰, 교육, 예능, 광고형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로 방영할 예정이다. 전문 컨설턴트로 연 매출 100억원 규모의 매장 경영과 외식업계 컨설팅을 주로 하는 ㈜마실의 박도진 대표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달 29일 첫 번째 온라인 홍보 영상인 ‘코로나19로 경영악화에 빠진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젝트’가 여수MBC 산하 ‘뽀뽀TV’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blcxOKC2NAY>)에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오는 7월 30일까지 5개 업체의 컨설팅 전·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공급증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 소상공인, 대학 관계자와 일반인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컨설팅 영상을 순천대학교와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